

“동물도 인간만큼 독특한 존재다”

동물과 함께한 과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흔히 동물은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동물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동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동물들에게서 인간을 배우기도 하고 세계의 희망을 찾기도 한다.

그렇다면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을까? 동물도 기뻐하고, 슬퍼하고, 노여워하고, 고통스러워할까? 《시튼 동물기(전5권)》(헛살과 나무꾼, 논장)로 유명한 어니스트 심슨 시튼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시튼 동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 커럽포의 늑대왕 로보의 최후는 동물이 인간보다 더 숭고한 존재일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에게 잡힌 로보는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평원만 하염없이 바라보다 숨을 거둔다.

동물 관찰하고 동물과 대화한 동물학자들

《시튼 동물기》에는 늑대, 산토끼, 회색곰 등 총 17편의 동물 이야기가 실려 있다. 새의 깃털 수를 일일이 세어 4천

9백15개라는 것을 알아낼 정도로 꼼꼼했던 시튼은 아주 세밀하게 동물들의 일생을 기록한다.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감정이 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연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시튼은 말한다.

시튼이 주변 동물을 관찰하고 그것을 이야기로 기록했다면, 콘라트 로렌츠는 아예 동물들과 대화를 시도한다. 솔로몬 왕은 마법의 반지를 이용해 동물들과 이야기했다. 로렌츠의 책 제목도 《솔로몬의 반지》(김천혜, 사이언스북스)다. 원제는 ‘그는 짐승, 새, 물고기와 이야기했다’다. 로렌츠의 대화는 동물을 의인화해 이해하려는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는 오히려 동물을 통해 인간을 보려 한다. 인간도 진화과정을 거친 동물인 이상 동물의 행동을 통해 인간을 좀더 잘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로렌츠는 기러기 새끼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새끼를 거위 배 밑 깊숙이 밀어넣고 도망갔지만 울면서 따라오는 기러기를 외면할 수 없었다. 기러기는 부화된 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을 어미로 인식한다. 그는 할 수 없이 기러기의 어미가 돼 침대 옆에서 한시간에 한 번씩 잠이 깨 “비비비” 하며 엄마를 찾는 기러기 새끼를 “강강강”하고 다독이며 키운다. 무심히 만나게 된 갈가마귀의 경우, 그들의 습성을 아는 것뿐 아니라 이제 그들의 얼굴까지 하나하나 기억할 정도가 됐다. 그가 이렇게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사랑 때문이었다.

유인원 연구에 평생 바친 세 여성 인류학자들

평생을 유인원과 함께 한 여성 인류학자들도 있다. 제인 구달, 다이안 포시, 비루테 골디카스가 바로 그들. 구달은 침팬지, 포시는 고릴라, 골디카스는 오랑우당을 연구했다.

제인 구달은 한국에 많이 소개된 편이다. 《희망의 이유》(궁리), 《제인 구달—침팬지와 함께 한 나의 인생》(이상 박순영, 사이언스북스) 등은 제인 구달의 자서전이고, 《인간의 그늘에서》(최재천 외, 사이언스북스)는 그의 본격적인 침팬지 연구서다. 영국에서 태어난 구달은 동물 연구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8살에 무작정 아프리카로 떠난다. 아프리카에서 그는 인류학자 루이스 리키를 만난다. 리키는 구달에게 탄자니아에서 침팬지를 연구하는 데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이때부터 구달은 침팬지에 흠뻑 매료됐다. “인간이 품성을 지닌 유일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고통을 아는 유일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덜 오만해질 수 있다”고 구달은 말한다.

《유인원과 산책》(S. Y. 몽고메리, 김홍옥, 다빈치)은 세 여성 인류학자들의 이야기를 양육자, 과학자, 여전사 등 세가지 관점에서 기술했다. 이들은 모두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설을 주장한 인류학자 루이스 리키의 제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리키의 제자라는 점을 빼면 세 사람은 다른 점이 많다. 구달은 그의 친구였던 암침팬지 플로만큼이나 조용한 성격이었다. 실제 구달은 플로를 통해 배운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해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비해 마운틴 고릴라를 지킨 포시는 불행한 여전사였다. 1967년 르완다의 3천미터 고도에 카리소케 캠프를 차린 그는, 1985년 참혹한 모습으로 살해된 채 발견됐다. 고릴라 디지털가 손과 목이 잘려나간 채 무참하게 살해된 1977년 이후 그는 밀렵꾼으로부터 고릴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다. 골디카스는 아직도 보르네오섬의 탕중 푸팅 국립공원을 지키고 있다. 가족이나 집단별로 생활하는 다른 유인원과 달리 오랑우탄은 다른 오랑우탄과 한번도 만나지 않고 한달 이상 지내는 경우도 있어 그의 연구는 특히 어렵고 느렸다. 오랑우탄이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데는 무려 8년이나 걸렸다.

이들 세 사람의 삶은 “인간이 독특한 존재라면 바로 그만큼 모든 동물도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김정근 기자